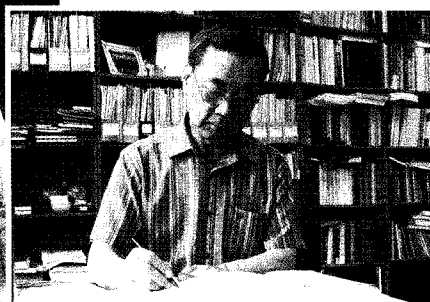


부경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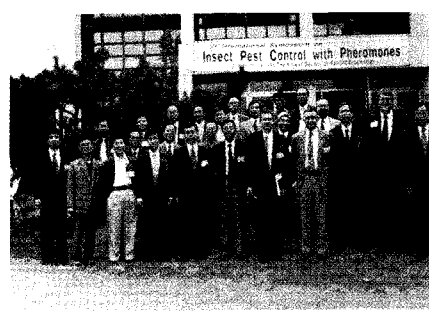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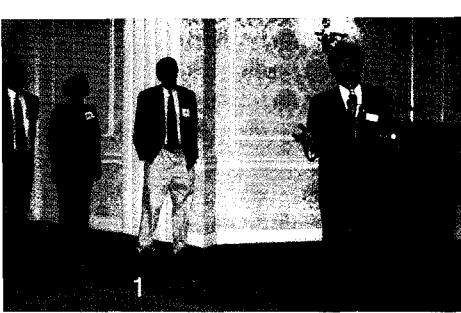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란 좌우명을 새겨둔 청초한 인품의 南軒 夫庚生(6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선비의 청초함과 따뜻한 정을 지닌 휴머니스트이자 고집스럽게도 40여년간 곤충학 연구에만 매진해 온 외골수 학자다. 후학들에게 오직 체계적인 학문의 길을 열어 주교자 불면불휴하고 있는 농업과학전문용어집 편찬 작업은 퇴임이후 가장 큰 일상이 되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그의 연구실에는 용어 표준화 관련 도서가 빼곡히 쌓여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어머니 품처럼 반갑게 맞아줄 고향 제주도 서귀포에서의 감귤농원 경영을 위한 설렘과 기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수구초심(首丘初心) 아니겠는가?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2008년 초 갑자기 찾아 온 심장질환으로 두 번의 수술이후 건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과 걷기에 의존하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어느 분의 뜻을 새기는 중입니다.

퇴임이후 일상은 어떠하시며 요즘은 주로 무슨 일로 소일하시는지요?

수원 농생대 캠퍼스의 옛 본관건물 2층에 연구실을 마련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5일 출근하며 재임 중 다 하지 못한 농학은 물론 자연과학 전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에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1. 국제화학생태학회가 2006년 미국 워싱턴에서 부교수를 기리며 개최한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2. 국제학술회의 후 아내 김근숙 여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
 3. 1996년 한국응용곤충학회가 개최한 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과 함께.

또 재임시를 회고하신다면 어떤 일이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으신지요?

많은 후학들과 곤충의 기본생물학 연구를 일생 할 수 있었던 것과 제자들이 각 분야에서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여러 외국 학자들을 설득하여 아시아-태평양화학생태학회를 창설했던 것도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곤충의 페로몬 화합물을 활용, 해충집단의 증식을 예방하는 방안을 정교화 시킨 학자로 유명하신데 외람되지만 학자로서 본인을 평가하신다면?

40여 년간의 곤충학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아쉬움이 많습디만, 화학생태학분야에 해충집단의 증식 예방법을 실용화시킨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반면, 순수 곤충연구를 통해 곤충과 좀 더 가까워서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본디 과학자의 연구라는 것이 일생을 바쳐도 때로는 하나의 결과물도 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어서, 본인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고집스럽게 한 길을 열심히 걸어온 학자였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한국응용곤충학회 및 아·태곤충학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활동이 활발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학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곤충의 특징 중 하나가 날개지요. 즉 곤충에

게는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곤충학자들도 틀을 벗어나 국내 및 국제학회에서 열심히 토론·발표함으로써 활동 범위를 넓혀나갔으면 합니다. 올해 10월 아태곤충학회는 북경, 아태화학생태학회는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젊은 학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학문의 폭과 인적네트워크를 넓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기술용어표준화작업 및 개인적으로 편찬 중이신 '농학 분야 용어집'의 현재 진행상황 및 학계에 미칠 영향은?

퇴임직전부터 시작한 농업과학용어의 표준화 작업은 종료됐지만, 좀 미진한 부분을 다듬으면 약 18만여 개의 농업과학전문용어집이 완성됩니다. 한글용어가 잘못되어서 후학들을 가르칠 때나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때에 야기되는 혼돈을 용어 표준화를 통해서 해소시켜 체계적인 학문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chemical pesticide를 화학농약, biochemical pesticide를 생화학농약으로 표현하고 법규에도 올라 있는데 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요? chemical과 biochemical하면 우리는 무조건 화학과 생화학 생각만 하고 화합물과 생화학물이라는 의미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농약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며 재임시와 퇴임후의 농약을 보는 시각은?

“대소비자·언론인 홍보활동 강화로 작물보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갖게 해야”

퇴임 전과 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 고향인 서귀포에 내려가 감귤농원도 경영할 계획인데 하루하루 병해충과 잡초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농약에 대한 현장감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 좀 더 적절한 평가와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돌발하는 병해충에 대한 올바른 방제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대 농업에 있어 작물보호제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언제까지 남의 나라의 산물을 가져다 국내에 적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하는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농약으로 개발된 즉, 생물을 죽이는 화학물질(-cides)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른 방제 수단, 특히 생물적인 방제수단과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수는 없는지 또는 유해생물이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는 약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들의 집단이 커지기 전에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생리적, 생태적 방안은 없는 것인지, 좀 더 국내의 작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제 전략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농약 및 농산물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소비자들의 이

해를 위해 전문가로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는 업계의 홍보활동 강화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이라면 무조건 좋지 않다고 여기는 소비자는 물론 언론인의 인식 전환 방안은? 또 그들이 먹는 소위 내복약의 안전성은? 먹는 약과 농약의 차이는? 농약이라면 무조건 생물을 죽이는 것으로만 인식되는 것을 바로 잡는 법은? 농약을 유해생물방제제로, 살충제는 해충방제제, 살균제는 식물병 또는 진균방제제, 제초제는 잡초방제제라는 말로 대체하거나 겸용하면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 그런 면에서도 농약업계는 생물을 죽이는 약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집단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도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후학들을 위해 특별히 당부의 말씀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공부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제학술회의에서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더욱 이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4. 2006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한학술회의에서 폐막사를 하고 있는 모습
5. 곤충생리학교실 대학원생들과 등산

